

	보도자료 2025. 5. 22(목) 고상진 빛의혁명 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 (010.3654.8525)
---	---

“관치금융 바로 잡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답이다”

-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 여수신산업 22개 노동조합, 지지선언 -

- BC카드 노동조합 등 여수신업권(캐피탈,카드,커머셜,신용정보,파이낸셜) 22개 노동조합이 22일 오전 10시4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지지’를 선언했다.
- 이들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금융정책과 무책임한 관치개입은 대규모 자금경색과 산업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윤 정권을 비판하면서 “내란의 밤 이후 수개월 동안 광장에서 타오른 빛의 혁명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민심의 물결이었다”고 평가하고 “그 빛은 권력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일꾼”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또한 “이재명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체계 구축, 관치금융의 폐단을 바로잡을 실질적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단지 구호가 아닌, 실천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금융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현정 빛의 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늘 지지 선언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관치금융의 폐해를 바로 잡고, 금융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금융노동자들의 의지”라며 “국민을 위한 금융,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이날 지지선언에 동참한 22개 여수신업권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NK캐피탈노동조합, KB캐피탈노동조합, 우리금융캐피탈노동조합, 애꾸온캐피탈노동조합, 하나캐피탈노동조합, 현대캐피탈노동조합, 현대커머셜노동조합, JB우리캐피탈노동조합, KB신용정보노동조합, 나이스신용정보노동조합, 신한신용정보노동조합, 우리신용정보노동조합, 토요타파이낸셜 노동조합, OK신용정보노동조합, OK금융그룹노동조합)

붙임 : 지지선언문 전문, 사진

[여수신업권 22개 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금융노동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여수신업권 22개 노동조합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우리는 그 어떤 정권보다 더 혹독한 반노동·반민주주의 폭주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금융 정책과 무책임한 관치 개입은 대규모 자금 경색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졌고, 탄압과 개악으로 점철된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존 위기를 견디며 현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내란의 밤은 그 폭주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국민 주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활개치는 내란 가담 세력들과 이들과 결탁한 사법부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란의 밤 이후 수개월 동안 광장에서 타오른 빛의 혁명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민심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빛은 권력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관치금융의 폐단을 바로잡을 실질적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단지 구호가 아닌, 실천을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주의의 존속과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진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을 위한 금융,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광장의 불빛이 다시 타오를 시간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여수신업권 22개 노동조합 일동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NK캐피탈노동조합, KB캐피탈노동조합, 우리금융캐피탈노동조합, 애큐온캐피탈노동조합, 하나캐피탈노동조합, 현대캐피탈노동조합, 현대커머셜노동조합, JB우리캐피탈노동조합, KB신용정보노동조합, 나이스신용정보노동조합, 신한신용정보노동조합, 우리신용정보노동조합, 토요타파이낸셜 노동조합, OK신용정보노동조합, OK금융그룹노동조합)

